전남농산어촌유학 학생·학부모 만족도 높다

2년째 운영 유학 연장률 70% 상회…지역사회도 활력

道교육청 “정주형 장기유학·지자체 협력 통해 재도약”

#1.“자연과 함께 체험학습도 하고, 서울 학교에 비해 공부도 더 잘되는 것 같아 전남에서 중학교에 진학하기로 했어요.”

곡성 오산초등학교로 유학 와서 2년째 생활하고 있는 김지산(6학년) 학생은 아예 인근에 있는 옥과중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정했다. 유학생활이 너무 재미있고 걱정했던 공부도 서울 학교에 다닐 때와 비교해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2.“서울에서 코로나 때문에 수학여행을 못 가 아쉬웠는데, 구례북중으로 전학와서 수학여행을 서울로 갔어요. 너무 재밌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어요.”

구례북중학교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맹하영 학생의 체험담이다. 맹하영 학생은 “새로 사귄 농촌 친구들과 수학여행을 하며 즐거운 추억도 쌓고, 서울에 대해 다시 알게 돼 너무 좋았다”며 연신 싱글벙글이다.

지난 9일 오후 구례 중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전남농산어촌유학’ 성과나눔의 날 행사 도중 진행된 유학생·학부모·지역민과의 영상 대화 내용이다. 유학생들은 영상을 통해 유학생활에 대한 소감과 추억담을 가감없이 전달했다. 한결같이 “유익하고 만족스러웠다. 더 다니고 싶다”는 반응이다.

이처럼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2021년 시작해 코로나 시대 새로운 교육 대안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전남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은 큰 호응 속에 2년째 사업을 마무리해가고 있다.

이날 성과나눔 행사에서 전남도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1학기(3기) 유학생 304명 중 기간을 1차례(6개월) 이상 연장한 학생이 무려 70.7%인 21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2년째 유학중인 학생이 56명(18.4%), 3년 이상 장기유학을 희망한 학생은 60명(19.7%)에 달했다. 특히, 3년 이상 장기유학 희망 학생 60명 중에는 ‘정주형 장기유학’의 선도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해남 북일초·두륜중 35명 외에도 단기로 왔다가 장기유학으로 전환한 학생도 2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유학생과 학부모들의 현지 유학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방증이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최근 구례 중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전남농산어촌유학 성과 나눔의 날’ 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농산어촌유학의 교육적 효과도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날 행사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발표한 전남농산어촌유학 학생에 대한 교육적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상 학생의 87.2%가 생태감수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학생활 후 학생들에게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로는 ▲사회성 향상(58.6%) ▲자연 사랑(57.1%) ▲정서적 안정(54.3%) ▲체력 향상(34.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민들도 농산어촌유학으로 마을에 아이들과 젊은 사람들이 늘어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좋아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문섭 구례 중동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처음엔 잘될까 반신반의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은 너무 좋다”며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좋아하신다. 마을 회관에 나오시면 유학 이야기밖에 안 하신다”고 전했다.

반면, 6개월 단기 체류형 유학프로그램에 대한 아쉬움, 유학 가족들의 정주여건 미비 등은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전남교육청은 유학 온 지역에 전 가족이 이주해 3년 이상 생활하는 정주형 장기유학을 확대하고, 유학생과 가족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유학마을 활성화, 지자체 및 범부처 협력 강화를 통해 농산어촌유학 사업의 재도약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민정준·김재국·국현 교수 ‘이달의 전남대인’

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에 선정

전남대학교 민정준, 김재국, 국현 교수가 12월 이달의 전남대인으로 선정됐다. 〈사진〉

전남대 정성택 총장은 최근 대학본부 용봉홀에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기한림원) 정회원에 선정된 이들 세 교수를 ‘이달의 전남대인’으로 선정해 각각 표창하고, 별도의 기념패를 수여했다. 또 정회원 선정을 기념하는 심포지엄도 함께 가졌다.

이들 수상자들은 모두 전남대 출신으로 모교에서 세계적인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지난달 과기한림원이 선정한 5개 분야 28명의 정회원에 포함됐다.

시상식에는 과기한림원 종신회원인 국영종 명예교수, 김윤수 전 전남대 총장과 차세대 회원인 함유근 교수(자연대)를 비롯해, 현재 정회원인 안영근 전남대병원장, 정명호 교수(의대)가 함께 했다. 또 한은미 교수평의회 의장과 보직교수, 수상자 가족과 동료 선후배, 제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명호 교수를 좌장으로 한 심포지엄에서 ▲국현 교수는 ‘심혈관 리모델링 한 우물파기 연구’를 주제로, ▲민정준 교수는 ‘박테리아 프로그래밍: 암 면역치료의 새로운 차원’을 주제로, 그리고 ▲김재국 교수는 ‘차세대 배터리소재: 예측과 실현’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고, 함유근 교수와 함께 패널 토론을 가졌다. /임채만 기자

광주대 한국어교육과 ‘제1회 한국 문학기행’ 개최

문병란 시인 생가서 시 낭송·백일장 열어

광주대학교 한국어교육과는 12일 “최근 문병란 시인 생가에서 제1회 한국 문학기행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문학기행은 최지수 교수의 ‘한국문학의 이해’ 수업을 듣거나 행사에 관심이 있는 한국 학생과 베트남 및 중국 유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인문학적 사고를 부여하고 넓은 세계에서 꿈을 펼쳐보자는 목표로 진행됐다. 특히 학생들은 통일과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한 문병란 시인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시 낭송과 백일장을 통해 문학적 메시지를 담아내는 시간을 가졌다.

‘인생’을 주제로 진행된 시 백일장에서는 한국어교육과 김수은 학과장과 김윤희 교수, 공하림 교수 등이 참여한 심사를 통해 김예진(한국어교육과) 학생이 금상을 받았다. 또 박한나(외국어학부), 천유강(문예창작과) 학생이 각각 은상과 동상을 수상했다. /임채만 기자

목포대 R-WeSET사업단, 사업 추진 자문위원회 개최

지역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사업 年 20억 사업비 지원

마찬호 남양건설 대표 “교육 개발·예산 확보 등 필요”

목포대학교 호남제주권역 전남 지역 R-WeSET사업단이 최근 2022년 R-WeSET 2.0 사업 성과 확산·2023 사업 추진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회의는 도의원, 전문가, 관계기관 대표 등으로 구성된 ‘R-WeSET 자문위원회’를 발족해 전남 지역 여성과학기술인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공유 확산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재빈 목포대학교 교수(위원장), 마찬호 남양건설㈜ 대표, 윤명희 전남도의원, 김영상 전남대학교 교수, 김성두 전남중앙신문대표, 김동호 전남테크노파크 팀장 등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R-WeSET 자문위원회에서 윤명희 도의원은 “전남 지역 R-WeSET사업단이 전남 지역의 여성과학기술인 인재 양성을 위해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찬호 남양건설㈜ 대표는 “지역 여대생들이 실무형 교육·인턴십을 통해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내 산업체와 협업, 교육 개발·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은 여성 과학 기술 인력 육성·지원 활성화·제도·환경 개선을 통해 우수 여성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활용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돼 전국 4개 권역 사업단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전남지역 R-WeSET사업단(목포대학교)은 전남·광주지역 여중고생, 이공계 여대생, 경력단절 여성 과학 기술인을 지원한다. ‘지역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 사업 (R-WeSET 2.0)’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연간 20억원 안팎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전국 4개 권역으로 충청권역(충남대, 한국교통태, 순천향대), 대경강원권역(계명대, 한림대, 대구대), 동남권역(부경대, 인제대, 신라대, UNIST), 호남제주권역(제주대, 군산대, 목포대) 권역별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사업을 수행한다.

목포대학교는 제주대학교를 중심으로 군산대학교와 함께 호남제주권역의 지역 맞춤형 진로 정보·전공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공계 여성 인재 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목포대는 전남 지역의 소외된 섬 지역 중·고생 대상 ▲신기술과 연계한 이공계 전공 체험·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남 지역 이공계 여대생을 대상으로 ▲신기술 융합 현장실무 온 오프라인 전공 교육 ▲전공·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WISET J-리더스 양성 및 커리 탐색, 멘토링 등을 운영해 전남 지역의 우수한 여성과학기술인 인재 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

사업단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이공계 여성인재 육성 지원 사업, 지역 이공계 여성인재 진출 촉진사업(R-WeSET), 사업 수행을 통해 전남 지역 여중고생 2만8천721명, 이공계 여대생 1만3천438명, 성과 확산 730회, 한국공학교육학회 논문 발표 등 지역 이공계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6년간의 차단계 사업(2022년-2027년)으로 ‘지역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사업(R-WeSET 2.0)’을 추진 중이다. /목포=정해선 기자

CMYK